

광양시, ‘스포츠 도시’ 도약… 5대 전략과제 추진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 활발 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 조성

전라남도 광양시가 올해 ‘시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핵심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양은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 체계적으로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 우수한 체육지도자 네트워크 등 전지훈련에 최적화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난해 동계 전지훈련 기간 수영, 육상, 축구, 탁구 등 4개 종목에서 총 115개 팀, 연인원 1만59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해 약 15억3000만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포함해 총 10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3만8000여명의 선수가 우리 시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으로, 약 25억원

규모의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내년에도 전지 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참가 인원과 체류 기간에 따라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직장운동경기부와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올해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육상 부문에서 이아영 선수가 400m 1위를, 이기쁨·임민경 선수가 4×400m 릴레이 3위를, 김은정 선수가 높이뛰기 2위를 기록했다. 볼링 부문에서도 백승민·김동현 선수가 3인조 금메달, 김동현 선수가 개인전 동메달을 수상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시는 관내 19개교 9개 종목(축구, 태권도, 육상, 수영, 유도 등)에서 활동 중인 300여명의 유망 선수를 미래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금 및 체육지도자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 읍·면·동 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동호인 대회, 인근 시·군 교류전, 시·

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 다양한 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통해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생활권 중심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삼아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를 위한 축구(숫돌이 축구교실)와 풋살(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대상 수상레저(청소년 체력교실), 여성 대상 생활체조(여성생활체육강좌), 어르신 대상 요가(장수체육대학)와 종목 심판 강습(시니어 생활체육활성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마동권역 시민들이 찾는 성향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스쿼시, 요가,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과 함께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등 종목별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1인당 공공체육 시설 면적은 2016년 0.96㎡에서 2024년 1.67㎡로 약 1.7배 확대됐다.

현재 시는 봉강면 석사리 일원에 장애인 양궁장, 다목적 체육센터, 야구장이

포함된 ‘광양읍권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는 태인 체육공원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게이트볼 보급 확대를 위해 진상면과 광영동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설, 두 시설은 이달 준공 예정이다. 고령층을 비롯해 전 세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해서는 동천, 섬진강 둔치, 선사인 등 3개소에서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동천 파크골프장에는 18홀 규모의 신규 구장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양실내체육관의 전면 보수와 정기 점검은 물론, 전기·소방·승강기·무인경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지역 활력,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생활여건 개조 공모’ 선정 과역 가산마을·두원 성두마을

전라남도 고흥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과역면 가산마을과 두원면 성두마을 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기본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주도의 환경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지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 기반 정비, 노후 주택 개량, 주민 공동시설 조성, 휴먼케어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고흥군은 올해 초부터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모를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는 47억원(국비 33억원 포함)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마을 안길과 노후 담장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주택개선, 주민 공동시설 조성, 주민 돌봄 및 교육 지원 등의 종합적인 마을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행정과 마을 주민이 함께 노력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낙후된 농촌 생활 기반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농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장흥군, 31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

전라남도 장흥군이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사용 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8일 장흥군에 따르면 접수 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장흥군 내 소재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이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함께 자란’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뤄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지난 2019년 공동브랜드로 개발돼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는 품목별 품위관리원 예비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을 신뢰하고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을 승인한다. 사용 허가를 받으면 허가 기간 2년 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하게 된다.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로드 창작캠프’ 참가자 모집 18일까지…프로듀싱 지원 등

전라남도 순천시가 오는 18일까지 ‘2025 순천로드 창작캠프’에 참여할 창작자들을 모집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로드 창작캠프’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작자들이 창작하기 좋은 도시 순천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획안을 도출하는 메이커톤(‘만들다(Make)’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행사다.

분야별로 35명씩, 총 7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웹툰은 이달 말, 애니는 8월 초에 각각 2박3일 일정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내 정원위케이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증빙자료 제출 시 왕복 교통비가 지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비창작자와 현직 전문가가 협업하는 창작 멘토링 △선배 창작자에게 산업 트렌드와 성공사례를 배우는 기획특강 △창작자 간 교류를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파티 △정원 속에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메이커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멘토링도 기대할 만하다. 웹툰 분야에서는 이제 순천기업으로 정착한 앵커기업 케나즈가, 애니메이션 분야는 관내 입주기업과 수도권의 제작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제작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기획특강에는 전 세계에서 800억원 이상 수입을 거두고 오는 16일 국내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킹오브킹스’의 장성호 감독(모팩스튜디오 대표)과 네이버 인기 웹툰 ‘99강화나무몽둥이’의 두엽 작가가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다.

참가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문의는 운영사무국(061-725-0292)과 순천시 문화예술과(061-749-6802)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지난 7일 다압면 섬진강 일원에서 메기와 참게를 방류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섬진강서 어린 메기·동남참게 방류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난 7일 다압면 섬진강 일원에 메기 8만마리와 동남참게 6만마리를 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방류 행사는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주

민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류된 메기는 전장 6cm 이상의 우량 치어로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 등에 대응 가능한 지역 토산 어종이다. 동남참

게는 청정 하천에서 잘 자라는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종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다.

방류된 수산생물은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들로, 섬진강의 수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 어업인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농업·축산분야 1160억 규모 종합전략 추진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등

전라남도 보성군이 올해 1160억원 규모의 농·축산업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9966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수당 59억8000만원을 가구당 6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4425명)·농번기 공동급식 지원(94개 마을)·농업인 월급제(62농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 보험·농기계 종합보험 등 정책보험 분야에도 36

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핵심 목표인 유기농 인증 765ha 달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3만5000톤)·토양개량제·유기농자재·친환경 인증비 지원 등 친환경 농정의 기반을 다져 강화했다.

539ha의 친환경직불제와 650ha의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도 구축한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 600대를 보급하고 드론·지게차·자동화 콤바인 등 고가 장비는 도비·군비로 50%까지 지원한다.

축산 분야에도 사료 자동화, 체온 모니터링 등 디지털 전환과 환경 개선 등을 실현한다.

한우산업 고도화를 위해 1만3000두 인공수정 지원, 6500두 혈통 등록비 지원, 송아지 브랜드 육성비 2억4000만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낙농 부문은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폭염 피해 방지 장비, 환기 시스템 설치 등으로 가축 복지와 소비자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꿀벌 산업도 화분 공급·여왕벌 보급·말벌 퇴치 장비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보성=양종수 기자

